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up>st</sup> Street, New York, NY 10001

Phone: 212.736.8500 (EXT 355, 384)  
347.834.5784 (재택 근무)

Website: www.stfrancisk.org

청년 website: facebook.com/gropus/yagfyny

Email: stfrancisk.org@gmail.com

주임신부: Fr. Thomas Gallagher, O.F.M.

지도신부: 대기

지도수녀: 김도경 첼레스틴(투스 포교베네딕도회 서울수녀원) seoulso@gmail.com

사목회장: 이서원 마리로사 201.787.0879

한국학교: stfrancisks@gmail.com

[제1독서] ..... 탈출 22,20-26

[화답송] ..... 시편 18(17),2-3 ㄱ.3ㄴㄷ -4.47과 51(◎ 2)



(후렴) 저의 힘이신 주님, 당신을 사랑 하나이다.

- 저의 힘이신 주님,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주님은 저의 반석, 저의 산성, 저의 구원자시옵나이다. ◎
- 주님은 저의 하느님, 이 몸 숨는 저의 바위, 저의 방패, 제 구원의 뿔, 저의 성체 시옵나이다. 찬양하올 주님 불렀을 때, 저는 원수에게서 구원되었나이다. ◎

[제2독서] ..... 1테살 1,5ㄴ-10

### [10월 교황님 기도 지향]

(복음화 지향 : 교회 안에서 평신도의 사명)평신도, 특히 여성들이 세례성사의 은총으로 교회 안에서 더 큰 책임을 맡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밀줄 부분에서 모두 고개를 깊이 숙인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복음] ..... 마태 22,34-40

### [성가안내]

- 입당성가 [446] 우리는 주의 사랑을
- 봉헌성가 [46] 사랑의 송가
- 성체성가 [194] 성체 안에 계신 예수
- 파견성가 [278] 모후이시며

### 미사봉헌

연미사	봉헌
이영우, 이태모	이상홍 스테파노
김화자 소화데레사, 정인해 예로니모	김영숙 카타리나
김영우 요셉, 강건대 마리아 부부	김지영 유스티나
황봉애	성모회,유정옥,성미나
남정희 아네스	이은경 헬렌
이창울	민현숙 바울라
배재철 안토니	양미숙 마리아
이종란 크리스티나	한 안나, 서희 데레사
생미사	익명
김성중 다두	이영애 레지나
양윤희 루시아 가족	조 미카엘
김성민 미카엘 신부	뉴욕형제회 맛세오
뉴욕형제회 맛세오 구역원	뉴욕형제회 맛세오
최 아네스	최병남 미카엘라

주일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지향기도	예물봉헌	성가대 성찬봉사	독서자는 미사 전, 제의방 앞에 대기하고 있다가, 사제와 함께 행렬합니다.
10월 25일	이영노 울리안나	백이백 아오스딩	권희정 아델라	이영노 울리안나	—	양미숙 마리아	
11월 1일	백이백 아오스딩	이경자 울리안나	정은철 프란치스코	이경자 울리안나	—	이정현 헬레나	

“깜빡 문과 아차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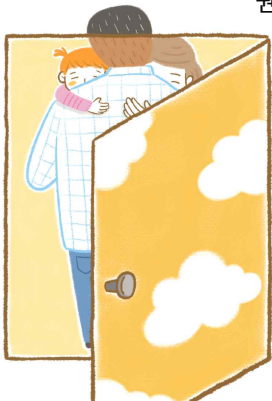
우리 가운데의 한 보통 가장. 그의 최근 이야기다.  
 세상살이 속상해서 간혹 술 마시고, 돈 때문에 아내와 다투고,  
 아이들 공부 안 한다고 혼내고, 직장 생활 괴롭다 푸념도 하고,  
 나는 왜 이리 쪽박 복이나 하고 한탄도 하고,  
 그러다 어느덧 흰 머리칼이 비치는 것을 발견했다.  
 올해도 그의 직장에서는 신체검사를 받으라고 했다.  
 그는 여느 해처럼 지정 병원에 가서 피도 조금 뽑고 소변검사를 했다.  
 엑스레이도 찍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 연락이 왔다. 신체검사를 한 병원에서 그를 찾는다는 것이었다.  
 그는 다음 날 출근길에 들르겠다고 했다.  
 “별일 있으려고.....”  
 그러나 그날 밤 그는 쉬 잠이 오지 않았다.

병원에 찾아간 그를 간호사가 맞아 주었다.  
 그러고는 회랑 깊은 곳으로 데리고 갔는데 그곳은 암 병동이었다.  
 “아니, 내가 암 환자란 말입니까?”  
 그는 걸상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암 병동 앞문 이름은 ‘깜빡 문’이라고 되어 있었다.  
 뒷문 이름은 ‘아차 문’ 이었고. 간호사가 문의 이름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앞문으로 나가는 사람은 병이 나은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들은 여기서 생각한 건강의 소중함과 삶의 탄력을 이내 깜빡하고 말거든요.  
 그래서 깜빡 문이에요. 그리고 저 뒷문으로 나가는 사람은 영안실로 가게 되지요.  
 그때서야 그들은 아차한다고 해요. 깜빡 놓치고 살았던 삶의 소중함에 대해서요.”  
 그는 면회 온 그의 아내 손을 잡고 말했다.  
 “이제서야 나는 진짜 삶에 대해 알았소.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을 버려야 할 것인지를 이제야 깨달았는데 이 신세가 되었구려.  
 나는 저 앞문으로 나가더라도 절대 깜빡하지 않겠소.  
 절대 아차 문으로만 나가지 않게 해주오.”



흐느끼고 있는 그를 흔들며 깨운 사람은 그의 아내였다.  
 “웬 잠꼬대가 그렇게 심해요. 어서 일어나 식사하고 출근하세요.”  
 그는 일어나 문을 가리키며 물었다.  
 “여보, 저건 아차 문이 아니겠지?”  
 전화가 걸려 왔다. 어제 한 연락은 병원 측의 착오였으니  
 회사로 바로 나오라는 전갈이었다.

그는 아내의 손과 아이의 손을 잡고서 말했다.  
 “우리 진짜 진짜 재미있게 살자.”  
 그리고 현관문을 가리키며 다짐했다.  
 “절대 저 문이 깜빡 문이 되지 않게 할 테니 두고 보렴.” ♠

본당 게시판

[기도해주세요]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마태 25,45)

- 김순한(루시아) 김옥지(아가다)
- 전마지(마가렛) 이재호(클레멘트)
- 전마사자(카타리나) 지군자(스테파니)
- 이중환(T.아퀴나스) 이정주(소화테레사)
- 김동희(헬레나) 김용기(요셉)
- 고종호(마태오) 홍봉운(바오로)
- 이경호(요셉그레고리오)
- 정창동(폴리나)↕



점(點)이 연결되면  
 선(線)이 되고  
 선이 연결되면  
 면(面)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거리를 둔  
 점이지만  
 마음은 언제나  
 넓디넓은  
 한 울타리입니다.

-이순구(베네딕도)

**[환영합니다]**

우리 성당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미사 안내]**

1. 미사 참석인원은 선착순 80명 이내이며 일정은 별도의 안내가 있을 때까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일미사 :
    - 토요일 4:00 pm
    - 일요일 8:00 am, 9:30 am(한인공동체), 11:00 am, 5:00 pm
  - 평일미사(영어) :
    - 월-금 7:30 am, 12:00 noon, 5:00 pm
    - 토 11:00 am
2. 봉사자의 안내에 따라 성당 입구에서
  - 1) 손 세정
  - 2) 마스크 착용 후 입장합니다.
3. 성당에는 신자간 거리를 유지하여 표시를 부착해 놓았으니 표시가 보이는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가족은 합석 가능).
4. 노약자나 호흡기 질환이 있는 이들, 면역력이 약한 분들은 주일미사를 온라인으로 참례하시기 바랍니다.
5. 실시간 온라인 미사 중계 :
  - 미국본당 홈페이지 <https://stfrancisnyc.org> 방문, "9:30 Korean Mass"를 시청하시면 됩니다.
  - ※ 해당 사이트에 있는 "Donation" 클릭하여 본당을 위한 기부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사시간 동안 지켜야 할 수칙]**

- 마스크는 미사 시간 내내 착용합니다.
- 미사 중 손을 잡지 않으며, 악수 등 신체 접촉을 피합니다(평화의 인사 등).
- 봉헌 :
  - 봉투 사용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성체 :
  - 영성체 전에 손 세정을 합니다.
  - 한 줄로 서서 6피트의 간격을 유지합니다.
  - 성체만 손으로 받아 영합니다.

**주일미사 시간 조정**

다음 주(11.1)부터 한인공동체 주일미사는 **9:15 am**입니다.



**손님 신부님 미사 일정**

새 신부님은 비자 승인을 받기 위해 대기중입니다. 오시는 동안 손님 신부님께서 주일미사를 집전하실 예정입니다.

- 10.25~11.29 : 김기수 프란치스코신부
- 12.6 | 13 : 김학범 알폰소신부(메리놀회)
- 12.20 | 27 : 조홍래 베드로신부(뉴약대교구)

**Daylight Saving Time Ends**

11월 1일(주일)에 해제됩니다. 봄에 잃었던 1시간을 회복하는 가을입니다.



**'재미와 정보' 온라인 신앙 콘텐츠 안내**

1. cpbc TV\_ 가톨릭콘텐츠의 모든것
2. 제이슨티비 : 좋은 기도문과 음악
3. 미카엘 잡학사전 :
  - 교리 지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
4. 성지순례하는 남자 : 성지 풍경과 역사

**[주보 온라인 서비스 안내]**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며, 매주 목요일에 업로드 됩니다. <https://stfrancisnyc.org> ⇨

스크롤을 내리면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화를 보실 수 있습니다. 클릭 ⇨ "주보" 버튼



**2차 헌금 : 오늘 미사 중**

**2021년 주보 광고**

- 신청비 : \$200
- 주보에 사업체 광고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이나 미사 전후 뒷성당 입구 재무 데스크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힘내라 인생**



주일미사	오전 09:30 윗 성당 *(11월 첫 주부터 09:15)
청년미사	(당분간 중단) 매월 둘째 토요일 오후 6:00
고해성사	오전 08:50 → 클레어 룸(기존에 주일학교가 사용했던 장소) 안쪽의 1층 컨퍼런스 룸
혼인성사	신부님께 직접 문의
유아세례	사무실 : 347-834-5784
예비자 및 견진교리	기간 : 9월 시작 - 다음해 4월 주일 10:50am-12:00pm, 클레어 룸



◆ 목 주 기도 성월 (성모 찬송)

- 모후이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 귀양살이 끝날 때에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뵈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十 기도합시다.

하느님,  
외아드님께서 삶과 죽음과 부활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목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임상 경험이 풍부한 MD들이 시술합니다

**CLEAR**

미백레이저  
리프팅/탄력  
얼굴윤곽시술  
웨딩케어  
맨즈케어  
메디컬스킨케어

**Clear Laser CITY CLINIC**  
501 5TH AVE. #2011, NY, NY  
212.697.1802  
ID: clearlascity

**뉴욕 맨하탄 NYC INTEGRATIVE ACUPUNCTURE**  
**마음힐리언스 한방병원**

**마리아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646-808-7322

이민전문 (아오스딩)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ATTORNEY AT LAW  
**STEVEN LOUROS**  
EXPERT IN PERSONAL INJURIES  
212-481-5275 (New York)  
718-423-0448 (Flushing)  
1261 BROADWAY SUITE 1100 NEW YORK  
SLOUROSESQ@YAHOO.COM

**COMPASS**  
Helena Park  
Real Estate Broker  
helena.park@compass.com  
212-289-8899  
110 Fifth Avenue, New York, NY 10011

Nest 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krishap@nestseekers.com  
(917)370-0394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 5 WINE & WEST 8 LIQUOR**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 11AM-11PM/ SUN: 12PM-9PM)

**인쇄·책출판**  
**당일 인쇄 가능**  
EDDM Mailing Services/Yelp. Email Marketing  
**212.971.0212 / 268.2776**  
208 W. 29TH ST. #203 NY, NY 10001

**더큰집**  
32 W 32ND STREET NEW YORK  
TEL. 212-564-8238

**원조 WONJO**  
23 W 32ND STREET, NEW YORK  
212-695-5815

그리운 **miss KOREA**  
10 W 32ND STREET 1,2,3 FL, NY  
201-888-6765

**김승범 분도 치과**  
2 WEST 46TH STREET SUITE 501 NY  
212-779-3368  
1585 PALISADE AVE FORT LEE  
201-585-0404

맨하탄 미드타운 통증병원  
==== **The Wellness Room** ====  
물리치료사 : 김 미카엘  
카이로프랙터/한 의사 : 김소피아  
212-302-2692

광고주를 찾습니다.

[청년회 안내] : 추후 공지 때까지 중단합니다.

청년회(FYNY) 모임	주일 미사 후	Damiano Hall
청년 전례부	둘째, 넷째 토 04:00pm	Conf. Rm(2F)
Choir 2 (야웨이레 찬양팀)	첫째 토 12:00-03:00pm 둘째 토 03:00-05:00pm	Francis Room
청년 성서모임	주일 01:00pm	Damiano Hall
청년 성령기도회/ 청년 Lectio Divina	1st, 3rd 수 07:10pm/ 2nd, 4th 수 07:10pm	Francis Room